

# 찰스 퍼스의 커뮤니케이션 사상에 대한 연구

—기호 세계의 속성과 논리 중심으로

이 두 원

## 1. 퍼스의 기호학적 인간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기호학의 선구자로 지명되는 퍼스 Charles S. Peirce(1839~1914)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의 범기호학적 *pansemiotic* 시각이다. 퍼스는 우주 *universe*의 삼라만상을 기호로 이루어진 세계, 즉 기호계(記號界) *semiosphere*로 보았고, 이것이 바로 '범기호학적' 시각이다.<sup>1)</sup> 물론 이것은 기호로 지각하고, 기호로 생각하고, 기호로 말하는 인간의 우주를 의미한다. 퍼스는 기호가 상징하는 모든 대상(사람·사물·사건·생각 등)까지도 이미 인간의 의식세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기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퍼스는 자신의 우주관을 다음과 같이 일축한다: "우주 전체가 기호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주 전체가 기호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sup>2)</sup>

우주 전체를 기호계로 본 퍼스에게 기호학은 모든 과학 *a universal science*에 접근하는 도구이자 통로였다. 1908년 12월 23일 퍼스가 웰

1) Noth, W., *Handbook of Semiot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0, p. 41.

2) Peirce, C.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8 vols.): C. Hartshorne, P. Weiss, & A. Burks(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 5.448.

비 Welby 여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퍼스의 철저한 기호학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 · 윤리학 · 형이상학 · 중력 · 열역학 · 광학 · 화학 · 비교해부학 · 천문학 · 심리학 · 음성학 · 경제학 · 과학의 역사, 침묵, 남자와 여자, 포도주, 도량형학——그 어떤 것에 대한 연구도 기호학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sup>3)</sup> 이러한 퍼스의 생각은 ‘인간’ 자체를 기호로 보는 ‘기호학적 인간관’을 생성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어휘나 기호가 인간이다.”<sup>4)</sup> 이러한 관점은 ‘기호’와 ‘기호-사용자 *sign-user*’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념화된 ‘인간의 기호’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호’의 개념을 벗어나 ‘기호에 의한 인간’ 그리고 ‘인간에 의한 기호’라는 개념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자신의 ‘인간관’을 퍼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思考)는 어휘나 다른 외부적인 *external* 심벌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나 심벌들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어휘/기호로 말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과 기호 *words*는 서로를 교육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소유하는 정보량의 증가(增加)는 기호가 소유하는 정보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어휘나 기호들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고(思考)가 기호이며, 인생(人生)이 생각의 연속임을 감안할 때, 인간은 곧 기호가 된다: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외부적인 기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도 외부적인 기호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 그러므로 나의 언어는 내 자신의 총체(總體)

3) Peirce, C. S., *Semiotic and Signifys: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Hardwick, C. (ed.),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p. 85.

4) Peirce, C., 1931~1958, 앞의 책, 5.314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고 *thought*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sup>5)</sup>

위 설명에서 퍼스는 '외부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 *internal*'이라는 대립 개념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호는 외부적이며, 인간은 내부적이고, 기호는 매개체이며, 인간은 주체라는 관념을 부인하고 있다. 기호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을 기호에 의해 실체화 *embodied* 된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마치 육체 *body*와 정신 *mind*의 관계처럼, 퍼스는 '기호'에 의해 실체화되는 주체 *the subject*를 인간으로 보았다.<sup>6)</sup>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데카르트 René Descarte에게 퍼스가 "'나'는 무엇이며 '생각'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데카르트 학파의 대답은 순환논법에 걸려버린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존재'는 '나'입니다." '나'와 '생각' 들 중, 그 어느 것도 다른 하나의 실존을 증명해줄 수 없다. 퍼스는 기호를 인간의 '실존적 매개체'로 봄으로써, 즉 인간[*man* = 'I']과 기호[*sign* = 'thought']를 동일시함으로써, "생각한다 고로 나는 있다 *thought thinks, therefore I am*"라는 명언을 남긴 셈이다. 즉 '생각하는 사고 *thought thinking*' 자체가 기호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러한 진행형(~ing)의 기호는 사고자(思考者=사고 주체)의 실존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난센스적인 문장이 퍼스의 기호학에서 진리로 탈바꿈한다: 말이 말하고 *speech speaks*, 생각이 생각한다 *thought thinks*!

5) Peirce, C., 같은 책, 5.313~14.

6) 이러한 퍼스의 급진적 인간관—"인간이 곧 기호이다"—을 매체철학자 마셜 맥루언 Marshall McLuhan의 명언, "매체가 곧 메시지이다 *Medium is message*"와 연결지어보면, 매우 유사한 방법론적 등식(等式)이 성립됨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주체'를 실체화하는 '실존적 매개체', 기호가 바로 인간이듯이, 전달 내용을 실체화하는 '실존적 매체'가 곧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등식이다.

## 2. 퍼스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관

### I.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인간이 곧 기호라는 퍼스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기호[=텍스트/메시지]는 더 이상 인간을 떠나 외부적으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퍼스에게 기호는 기호-사용자를 실체화 *embody*하는 실존적 매개체이며, 텍스트(메시지)는 커뮤니케이터 자신의 '사고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에게 기호가 기호-사용자와 분리되어 다른 곳(또는 사람에게)으로 전달된다든지, 텍스트가 커뮤니케이터를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은유적으로 제시된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면, 마음을 떠난 육체처럼 기호-사용자를 떠난 기호나 텍스트는 생명력(의미)이 없는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퍼스의 기호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사 소통)의 일반 개념들이 문제로 대두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생각을 말(기호)에 담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사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의사(意思)를 메시지에 써서 보내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 풀어보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개념에는 '생각'과 '말', '사고 내용'과 '매체', '생각'과 '종이', '의사(意思)'와 '메시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즉 인간과 기호의 분리하에서 구축된 '의사 전달'론이다. 마치 인간의 의미를 한 순간 말이나 종이 위에 '급속 냉동'시켰다가 다른 사람이 해동시켜 똑같은 의미를 재생하는 것과

같다.

사실 이러한 비유의 힘은 대단해서 그 속에 담긴 함정을 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호-사용자'를 떠난 '말'은 '잡음'일 뿐이며, '중이'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 만일 컴퓨터의 디스켓에 저장되어 운반되는 정보처럼, 발신자의 생각[意思]이 '말'이나 '중이'에 담겨져 수신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문제인 '오해 *misunderstanding*' 나 '모호성 *ambiguity*'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사 소통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와 모호성이 있고, 이러한 오해와 모호성을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도 있다. 이것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의사를 기호에 의해 '전달'하기보다는, 기호를 통한 의사 표현 과정(발신자 입장)과, 기호에 대한 의미 해석의 과정(수신자 입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글에서는 용어 정리상 전자의 경우(전달 위주의 커뮤니케이션)를 '전달형'으로, 후자의 경우(의미 표현과 해석 위주의 커뮤니케이션)를 '해석형'으로 명명하겠다.<sup>7)</sup> 물론 인간과 기호의 '합(合) 상태' [인간=기호]를 주장한 퍼스에게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정보보다는 해석형 모델로서 이해되었을 것이다(<그림-1> 참조).<sup>8)</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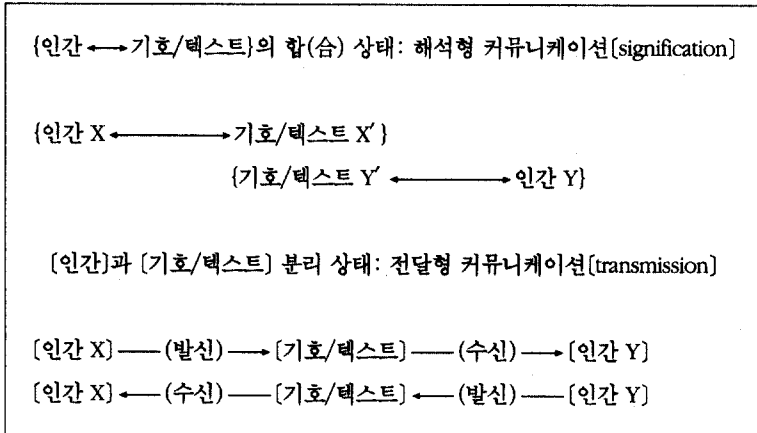
7) Eco(1976, pp. 8~9)는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전달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communication,' 그리고 해석 위주(의미화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을 영어의 'signification'으로 구분하여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8) 시그널 전송 시스템과 같은 기계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면, X지점에서 발신되어 Y지점에서 수신되는 시그널은 전송 신호를 상호 호환성 *compatibility*을 갖고 있는 기계 장치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전송 신호에 대한 정보 가치가 고정 *fixed*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해석형보다는 전달형 모델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 II. 화자와 청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퍼스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자 *speaker*' 와 '청자 *listener*' 의 구별을 주장하였다.<sup>9)</sup>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화자와 청자가 꼭 두 사람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판단의 한 행위 *an act of judgement*가 마음속에 [개별적으로] 등록됨으로써, 화자와 청자는 한 개인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sup>10)</sup>고 주장했다. 즉 판단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연속선상에서, 이를테면, 정(正)과 반(反)의 입장이 화자와 청자의 위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 해석형과 전달형 커뮤니케이션 모델



그러면 화자와 청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퍼스는 그것을 '언설(言說) *assertion*' 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설'을 설명한다.

9) Peirce, C., 앞의 책, 2.334.

10) Peirce, C., 같은 책, 5.399.

언설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을——즉 당면한 상황에서 아주 강박하게 떠오르는 특정한 아이디어를——전시(展示)하는 증거 *evidence*의 기능을 수행한다.<sup>11)</sup>

즉 화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당면한 생각이나 상황을 청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현상황에서 아주 강박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즉 기호]를 언설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언설[메시지/텍스트]이 어떤 전체적 의미나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청자를 유도하기 위한 단서나 증거물로 퍼스는 생각했다.

따라서 퍼스는 커뮤니케이션의 화자와 청자간의 의사 소통이 언설 [텍스트/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고정된 의미 *meaning in the text*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증거]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meaning yet to be found* 의미를 찾는 해석 작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일련의 사고 과정을 언설을 통하여 표현하고, 청자는 표현된 언설[메시지/텍스트]을 근거로 화자의 '사고 과정'에 대해 추론하면서 '화자와 청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퍼스의 커뮤니케이션관은 그의 기호학이 1) 인간의 사고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기호의 속성 그리고 2) 상대의 언설(기호)에 대한 해석 과정의 추론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 III. 기호의 구조와 재현의 속성

기호란 무엇이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퍼스의 다음 설명에서 기호의 정의와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11) Peirce, C., 같은 책, 2.335.

기호는 자신에 의해 생성되거나 한정되어지는 무엇 *something* 인가를 대신하고 있다. [……] 기호가 대신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대상 *object*'이며; 기호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의미이다; 그리고 기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기호의 해석소 *interpretant*이다.<sup>12)</sup>

기호는 자신 외의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이며, 기호를 구성하는 3대 요소로 1) 기호체 *sign*, 2) 기호체가 대신하는 '대상 *object*,' 그리고 3) 기호체와 대상이 합쳐져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호, '해석소 *interpretant*'가 있다. 이러한 퍼스의 기호 구조를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기호 = 기호체 + 대상 + 해석소'가 된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게 도로 표지판 '정지'는 하나의 기호체이며, 운전자의 머릿속에 존

〈표-1〉 퍼스의 기호학에 나타나는 기호의 삼각 구조

기호의 구조	하위 분류	사 례
기호체		도로 표지판 '정지'
대상 -사물 · 사건 · 명제	즉시적 대상 <i>immediate</i>	머릿속의 '정지 개념'
	동적 대상 <i>dynamic</i>	운전중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교통 안전을 위해 멈추어야 한다.
해석소	즉시적 해석소 <i>immediate</i>	'나는 정지해야 한다'는 생각
	동적 해석소 <i>dynamic</i>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최종 해석소 <i>final</i>	'정지' 표지판을 보고 습관적으로 정지하는 행위

12) Peirce, C., 같은 책, 1.339.



재하는 기호의 의미, '정지 개념' 또는 '운전중 정지 신호가 있으면 교통 안전을 위해 멈추어야 한다'가 기호체가 가리키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호체와 대상(의미)을 파악한 운전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는 정지해야 한다'는 생각,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또는 정지 표지판을 보면 습관적으로 정지하는 행위 등이 해석소가 될 수 있다.

기호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퍼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 외의 다른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물·사건·개념·느낌 등이 모두 기호가 될 수 있다. 기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석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느낌·생각·행위 등이 모두 해석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생각·행위 등은 일종의 개념(생각)이며 기호인 것이다. 따라서 한 기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해석소' 역시 또 하나의 기호이며, 다시 그 기호에 의해 또 다른 해석소가 떠오르고 이러한 기호의 무한대적 생성 과정은 곧 사고(思考)의 연속 과정을 나타낸다.<sup>13)</sup> 결국, 기호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기호(해석소)를 떠올렸음을 의미한다.<sup>14)</sup>

기호체가 삼각 구조 속에서 대상을 대신 *stand-for*하고 해석소를 생

13) 퍼스는 기호체·대상·해석소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세미오시스 *semiosis*라고 부르고 있고(Peirce, 5.484), 인간의 사고(思考) 과정과 같은 기호의 무한대적 생성 과정을 '무한대적 세미오시스 *unlimited semiosis*'라고 명명하고 있다(2.12~2.13).

14) 퍼스는 기호-사용자의 마음속에서 기호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해석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표-1〉 참조). 첫째, 즉시적 해석소는 기호-사용자가 기호를 지각하는 순간 받은 첫인상의 질적 요소 *quality*를 말한다(8.315). 둘째, 동적 해석소는 기호-사용자가 기호에 의해 받은 직접적인 영향 *direct effect*를 말한다. 셋째, 최종 해석소는 습관이나 법칙과 연결되는 해석소로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서 나온 최종적 해석을 말한다(8.184).

성하는 과정에서 갖는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퍼스는 세 가지 단계에서 나누어 구분하였다(〈표-2〉 참조). 첫째, 매개체(기호체)로서 기호의 본래 모습을 1) 속성/톤 *qualisign/tone*, 2) 실체/원형 *sinsign/type*, 3) 규칙/토큰 *legisign/token* 으로 세분화하였고, 둘째, 지시체(대상)와의 관계에서 기호의 모습을 1) 아이콘, 2) 인덱스, 3) 심벌로 세분화하였으며, 셋째, 해석소와의 관계에서 기호의 모습을 1) 명사 *term*, 2) 명제 *proposition*, 3) 논증 *argument* 으로 세분화하여 기호의 다각적인 기능과 성격을 설명하였다.

〈표-2〉 기호의 삼각 구조와 관계에서 본 기호 분류표

	속성 기호	실체 기호	규칙 기호
매개체로서 기호 그 자체는:	성질 또는 속성 그 자체(예: 금속 활판의 견고성, 유동성, tone)	실질적 존재 (예: 신문을 찍어낸 활판의 원형을, type)	전형화된 일반 법칙 (예: 신문 위에 활자화된 기사, token)
지시체(대상)와의 관계로 구성되는 기호는:	아이콘	인덱스	심벌
	지시체의 성질 <i>quality</i> 을 공유함 (예: 사진의 사진, 일러스트, 인용문)	지시체와 자연적· 존재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예: 사 건에 대한 인터뷰)	지시체와 관습적· 규칙적 관계가 있음(예: 사건에 대한 논평, 해설)
해석소에 의해 대신 [변형, 진술]되어질 때 기호는:	Rheme(개념소; Term, 名辭)	Dicent(표현소; Proposition, 命題)	Argument(論法)
	가능성의 기호 (예: 판단의 개념, 단서——컨셉트 헤드라인)	실존적 사실의 기호 (예: 판단의 주· 술부적 진술 ——서브헤드라인)	논증(論證)의 기호 (예: 판단의 확실성, 개연성에 대한 메타 진술——기사)

그러나, 기호가 이러한 삼각 구조와 관계 속에서 기호-사용자에  
게 자신 외 다른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도, 기호로 만들  
어진 보도 *report*/메시지는 이미 '현실 *reality*'의 재현일 수밖에 없

다.<sup>15)</sup> 퍼스는 기호가 '숙명적으로' 자신 '외'의 어떤 다른 것을 재현하는 존재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sup>16)</sup> 여기서 재현 *re-presentation*이란 이미 앞서 존재한 사건·사물·생각·행위 등에 대한 재구성이며, 재현되기 이전의 '현실'에 대한 변형 *transformation*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호'의 속성은 자신이 상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렇다면, 기호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의사소통은 가능한가? '현실'에 대한 '재현'과 '재구성'을 전제로 하는 기호에 의해 '현실'의 참모습이 보도될 수 있는가? 퍼스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기호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퍼스는 기호를 통한 '현실'의 참된 '재현'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공동체의 힘이 전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현의 진실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관찰에서 발견되는 보편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다음 언급에서 나타난다.

현실은 [……] 정보와 이성에 의해 조만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나와 당신의 변덕 *vagaries*은 단독적인 것에 지난다.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동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공동체는] 지식의 한정된 확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실과 가현실 *unreal*이란 두 가지 인지적 시리즈에 대해 공동체는 계속되는 미래의 충분한

15) 기호에 의한 의사소통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일차성 기호들'의 사례들—실현 예술에 의해 나무의 목질(木質)이나 비단의 감촉 자체가 매개체로[Qualisign] 사용된다든지, 사진기자가 사진[Icon]을 이용하여 보도 대상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소비자에게 제품 컨셉트가 전달되는 경우—에서조차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미체)'과 '표현된 것(기호체)' 사이의 분리는 이미 피대변인과 대변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Peirce, C., 같은 책, 1.339, 2.228.

17) Eco(1976, p. 6)가 기호학을 '거짓에 대한 이론 *a theory of the lie*'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일 것이다.

시간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진실과 가현실을 규명한다.<sup>18)</sup>

어떤 현실도 기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주장한 퍼스에게, 기호의 재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결국 기호를 통해서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퍼스는 기호에 의한 재현이 정확히 되었는가는 공동체의 공동 확인 그리고 이성에 의해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호를 통한 ‘현실’에 대한 의사 소통의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3. 퍼스의 유추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 I. 커뮤니케이션과 추론

기호-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호에 저장된 한정된 정보를 읽는 능력과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그 이상의 사실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를 인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필요 조건이라 한다면 후자는 충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사 소통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필요 조건이 언설(단서/증거)을 읽는 일이며, 그 다음 그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상황적 의미 *contextual meaning*’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 기호를 보면서, 우리는 “만일 ~라면, ~이다 If ~, then ~”의 추론에 의해, ‘자식’을 가진 아버지일 것이라는 것,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 성인이라는 것 등의 의미를 생성해낸다. 이것은 기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기호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상황적 의미에 적합한 또 다른 기호를 불러들이는 해석 과정이며, 논리적 추론—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버지는 결

18) Peirce, C., 같은 책, 5.186~87.

흔한 경험에 있다 등 —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 확장(기호 해석 과정)이 가능해진다.

만일 인간의 의사 소통에서 '추론 *inference*'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다음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갑: "커피 한잔 할래?"

을: "커피를 마시면 난 잠이 안 와."

'을'의 언설은 '을'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한정된 정보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나 '갑'은 추론을 통하여 '을'이 '깨어

〈표-3〉

추론의 논리

연역법: 법칙 + 사례 = 결과
<p>법칙: 이 주머니에서 나온 모든 콩은 하얀색이다.</p> <p>사례: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p> <p>결과: 이 콩들은 하얀색이다.</p>
귀납법: 사례 + 결과 = 법칙
<p>사례: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p> <p>결과: 이 콩들은 하얀색이다.</p> <p>법칙: 이 주머니에서 나온 모든 콩은 하얀색이다.</p>
유추법: 법칙 + 사례 = 결과
<p>법칙: 이 주머니에서 나온 모든 콩은 하얀색이다(가설적 법칙).</p> <p>결과: 이 콩들은 하얀색이다.</p> <p>사례: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아마도).</p>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 후, '을'은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추론 과정이 없으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는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듯, 일일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의와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지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퍼스는 이러한 추론의 3대 양상 *modes*으로 1) 연역법, 설명적 추론 *explicative inference*, 2) 귀납법, 평가적 추론 *evaluatory inference*, 그리고 3) 유추법, 창의적 추론 *innovative inference*을 들었다(Peirce, 6.475). 첫째, 연역적 추론은 우선 법칙이 존재하고 주어진 사례에서 결과를 도출한다. 둘째, 귀납적 추론은 주어진 사례와 결과를 통하여 법칙을 도출한다. 셋째, 유추법은 법칙과 결과로부터 사례에 대한 유추를 한다. 퍼스는 그 예를 <표-3>과 같이 제시한다.<sup>19)</sup>

특히 퍼스는 인간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추론 논리로 '유추법'을 지명한다.<sup>20)</sup> 연역법과 귀납법은 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론이 될 수 없는가? 연역법은 대전제[규칙]에 의해 이미 알려진 정보 이외의 어떤 '새로운' 사실도 생성해낼 수 없다. 연역법의 대전제는 그것으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3>에서 보듯이 연역법의 대전제,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얀색이다'라는 규칙[법]은 우리에게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이라면, 어느 것이든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한다는 사실 *fact*을 강요한다. 귀납법에서 사례와 판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규칙 또한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생성해내기보다는 지금까지 관찰된 사례와 결과에만 해당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해 귀납법에 의해 얻은 규칙[법]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 타당도 *external validity*가 없는 것이다.

19) Peirce, C., 같은 책, 2.623.

20) 퍼스는 유추법을 때에 따라서 '연역적 가설 *deductive hypothesis*' 또는 '가설 *hypothesis*'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퍼스가 말하듯이 “연역법은 무엇이 반드시 *must be*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귀납법은 무엇이 실제로 *actually*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sup>21)</sup> 그러나 유추법은 “단지 무엇인가가 아마도 어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sup>22)</sup> 즉 유추법에서 법칙과 결과로부터 유추된 사례는 ‘그럴 수도 있고 *may-be*’ ‘안 그럴 수도 *may-be not*’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추법에서 가설적 법칙 *hypothetic rule*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보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퍼스는 인간이 새로운 것을 알아내거나 배운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추법 추론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현상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유추법에 의한 것이다.”<sup>23)</sup> 예를 들면, 탐정 셜록 홈즈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모자를 보고, 범인의 머리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유추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탐정은 모자가 크다는 사실에서 범인의 머리가 크다고 가정한다. 또 머리가 크면 두뇌가 크고, 지능이 높다는 가정까지 한다. 현장에 떨어져 있는 범인의 모자(기호)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추법의 법칙(각종 명제들)과 결과(발견된 모자)에 바탕을 둔 가설적 정보이다.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추측 *guessing*이나 가설이 없이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퍼스가 커뮤니케이션의 화자와 청자간의 의사 소통이 ‘언설(단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언설은 전달 내용의 전체가 아닌 부분이며 따라서 전달 내용을 대략적으로 가르쳐주는 단서 또는 증거라는 개념도 살펴보았다. 퍼스는 인간의 의사 소통이 ‘언설(부분적 단서)’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유추법을 통해 상대의 의사(意思)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가설

21) Peirce, C., 같은 책, 5.171.

22) Peirce, C., 같은 책, 5.171.

23) Peirce, C., 같은 책, 5.171.

을 세움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퍼스에게 유추법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자 능력 *competence*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유추법, 인간의 타고난 재능

유추법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고 또한 능력이라면 그러한 재능 *faculty*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학습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타고난 능력인가? 퍼스는 유추법이 인간이 생존을 위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된 재능이며, 따라서 타고난 능력 *inborn competence*이라고 주장한다. 퍼스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최첨단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타고난 동물적인 본능 *instinct*에 의한 것”<sup>24)</sup>이라고 보았다. 그는 유추법을 이러한 ‘추측의 본능 *guessing instinct*’과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추적 제안 *abductive suggestion*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온다. 그것은 아주 틀리기 쉬운 성찰 *insight*이긴 하지만 일종의 성찰의 행위이다”<sup>25)</sup>; 그리고 “유추법은 [……] 곧 추측이다.”<sup>26)</sup>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본능/직감력 *inborn instinct*’은 퍼스의 기호학에서는 ‘자연적 성찰 *natural insight*’이며, 삶의 관행 *the praxis of life*으로부터 발전된 ‘자연의 법칙 *the laws of nature*’으로 이해되었다.<sup>27)</sup> ‘유추법’과 ‘자연의 법칙’ 사이의 관계를 퍼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추적 논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human mind*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자연의 법칙에 의한 생각들 사이에 일치

24) Peirce, C., 같은 책, 2.754, 6.604.

25) Peirce, C., 같은 책, 5.181.

26) Peirce, C., 같은 책, 7.219.

27) Peirce, C., 같은 책, 6.475 참조.



점 *agreement*을 향한 자연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sup>28)</sup>

팬 Fann은 이러한 퍼스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한다: “마음과 자연의 관계는 진화 과정을 통한 본능적인 삶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연의 법칙하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sup>29)</sup>

다윈 Darwin의 진화론에 대한 성찰과 함께, 퍼스는 인간의 본능 *instinct* (직감의 본능)과 자연의 법칙간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자연의 법칙하에서 진화해온 인간의 마음이 자연의 패턴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sup>30)</sup> 퍼스는 유추법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논리 *practical reasoning*’로 본 것이다.<sup>31)</sup> 한 예로, 원시인이 들녘을 건다가 ‘무엇 *something*’인가를 보았다면, 그는 스스로 “저게 무엇이지?”라고 물었을 것이다. 퍼스의 유추적 시각에서 설명하면, 그 원시인이 그 물체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거나 또는 느껴보기 전에 수백 가지의 ‘가설’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 것이다. 그 원시인의 마음속에서 그 물체에 대한 결과는 이미 실험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설명적 가설 *explanatory hypothesis*을 세우는 자원 *source*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규칙)은 수많은 설명적 가설들(결과)을 갖고 세상을 직면[사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역법이나 귀납법은 인간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퍼스의 직접적

---

28) Peirce, C., 같은 책, 1.81.

29) Fann, K., *Peirce's Theory of Abduction*,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70, p. 37.

30) Peirce, C., 같은 책, 7.39.

31) Peirce, C., 같은 책, 5.336 참조.

인 대답은 '없다'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현상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추법에 의한 것이다."<sup>32)</sup> 퍼스는 인간이 유추법을 사용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발견한 후, 그러한 정보에 대한 검증 수단으로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연역법과 귀납법을 분석의 논리(방법론)로 규정지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추론을 다시 분석의 논리 *the logic of analysis*와 경험의 논리 *the logic of experience*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가 부자연스러우며, 이성적인 것에 반해, 후자는 자연적이고 삶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4〉 참조). 즉 분석의 논리(예, 연역법·귀납법)는 인간이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경험의 논리(유추법)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으로 인간이 세상을 직면할 때 이미 동반되는 논리이다. 이것은, 앞서서도 보았듯이, 인간[규칙]이 수많은 설명적 가설들[결과]을 갖고 세상을 직면[사례]하는 경험과정에 유추적 추론 과정이 내재해 있다고 믿은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퍼스에게 유추법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며, 유추법을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세상(기호로 만들어진)에 대해 추측하고, 이해하며,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는 것이다.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퍼스의 기호학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사상의 윤곽을 잡아보는 데 연구 목표를 두었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최근 기호학적 방법론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기호'를

32) Peirce, C., 같은 책, 5.171.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호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호학의 선구자로 지명되는 퍼스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의 기호학에서 구체화해보려는 시도이다. 물론 퍼스의 기호학 전체를 커뮤니케이션론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의 기호학이 철학 중 심적이고,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전개도 매우 복잡하여서, 우선 '커뮤니케이션(의사 소통)'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퍼스의 기본 입장을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퍼스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기호관과 인간관을 탐색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과 기호'의 관계에 대한 그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퍼스의 기호학에서 '기호가 어떻게 기호-사용자(수용자)에게 정보 전달과 확장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기호의 재현 *re-presentation*적 속성을 고찰하면서, "과연 기호를 통해 '현실 *reality*'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퍼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퍼스의 기호학에서 핵심이 되는 기호 논리, '유추법'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기호 해석 능력)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해보고자 했다.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추론'을 충분 조건으로 한다고 보고, 퍼스의 유추법이 기호를 통한 '새로운' 정보 발견과 확장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유추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인간은 유추적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 *faculty*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또 유추법은 연역법이나 귀납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퍼스의 입장과 생각을 살펴보았다.

〈표-4〉

분석의 논리와 경험의 논리 비교

구 분 \ 논 리	분석의 논리	경험의 논리
정 의	기호에 대한 이성적 지식 논리 <i>the logic of knowledge</i>	기호에 대한 경험적 이해 논리 <i>the logic of understanding</i>
논리적 성격	확실성의 논리	불확실성의 논리
처리 대상	불연속적이며 배타적인 대상	연속적이며 포괄적인 대상
방법론적 성격	Either/or; 분석적	Both-and; 변증적
능력	분석의 능력; 지식 위주	경험의 능력; 이해 위주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폐쇄적 커뮤니케이션
기호학적 생성체	메시지(parole)	코드(langue)
종 류	연역법 · 귀납법	유추법

이상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퍼스의 기호학에서 나타나는 그의 커뮤니케이션 사상을 구체화할 만한 다음 사항들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퍼스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기호의 연속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을 생각의 연속체로 보고 이러한 생각의 연속은 곧 기호의 연속이라는 결론하에 ‘인간이 곧 기호’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호로 생각하고, 기호로 지각하고, 기호로 말하는 인간에게 기호는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 매개체가 된다. 맥루언이 매체가 메시지라고 했듯이, 퍼스에게 기호는 곧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기호가 분리될 수 없고, 커뮤니케이터와 메시지/텍스트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퍼스의 입장은 그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형’ 패러다임보다는 ‘해석형’ 패러다임에서 보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퍼스

는 “커뮤니케이션의 화자와 청자가 한 인간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퍼스의 시각은,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되돌아보면, 철저한 ‘수용자, 즉 기호-사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최소 단위를 ‘인간 $\longleftrightarrow$ 기호’로까지 확대시켜놓았던 것이다.

둘째, 퍼스는 화자와 청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언설’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언설은 일련의 기호들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호들은 화자의 사고 과정(意思)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며, 전체 내용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청자는 언설을 통하여 화자의 ‘전체적인’ 사고 과정을 해석해내려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1) 기호의 삼각 구조와 관계 그리고 2) 기호-사용자(수용자)의 추론 능력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퍼스는 믿었다.

또한, 기호가 자신 외의 다른 것은 재현한다는 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기호의 재현성이 현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실’이 기호의 재현에 의해 설사 재구성되거나 왜곡된다 해도 그것은 공동체적 관찰이나 보고에서 재확인되고, 또 분석 논리인 연역법이나 귀납법에 의해 재평가되어 고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퍼스는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추리적 사고 능력인 유추법이라고 보았다. 즉 기호를 통한 인간의 의사 소통은 인간이 타고난 유추력(類推力)에 의존한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유추적 추론을 통해 주어진 기호의 내용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서, 기호(매개체)를 통한 새로운 정보의 발견 *discovery*, 확장 *extension*, 그리고 진화 *evolution*를 성취할 수 있다고 퍼스는 보았다. 퍼스는 인간[규칙]이 수많은 설명적 가설들(결과)을 갖고 세상을 직면[사례]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경험의 논리인 유추법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기호 해독을 넘어선 기호(매개체)

에 근거한 정보 추리 과정으로 확장시킨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 커뮤니케이션(의사 소통)을 기계적 커뮤니케이션(의사 전달)이나 동물 커뮤니케이션(의사 전달)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방법론적 특징으로 '추리'와 '발견'의 기호 논리인 '유추법'을 명시화한 것이다. 또한 퍼스는 인간을 '기호를 사용하는 동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호를 매개체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innovate* '추리적 동물'로 규정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Buchler, J., *Charles Peirce's Empiricism*,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39.
- Cherry, C., *On Human Communication: A Review, A Survey, and A Criticism*,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M. I. T. Press, 1966.
- Eco, U.,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 , *The Role of the Read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 ,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Fann, K., *Peirce's Theory of Abduction*,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70.
- Feibleman, J., *An Introduction to Peirce's Philosoph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6.
- Goudge, T., "Peirce's Evolutionism—After Half a Century," in E. Moore & R. Robin (ed.),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Charles Sanders Peirce* (pp. 323~41),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64.

Haas, P., *The Conception of Law and the Unity of Peirce's Philosophy*, Notre Dame, IN: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4.

Kevelson, R., *Methodological Solipsism: Charles S. Peirce's Phenomenology*, in J. Pelc and et al.(ed.), *Sign, System and Function* (pp. 89~104), Berlin, New York, and 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6.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5.

Noth, W., *Handbook of Semiot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0.

Peirce, C.,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8 vols.), C. Hartshorne, P. Weiss, & A. Burks(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

Peirce, C., *Semiotic and Significs: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Hardwick, C.(ed.),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Popper, K.,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Basic Books, 1959.

Ransdell, J., "Type/token," in T. Sebeok(ed.),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p. 1130), Berlin, New York, and 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6.

Rosensohn, W., *The Phenomenology of Charles S. Peirce: From the Doctrine of Categories to Phanerosopy*, Amsterdam, Holland: B. R. Gruner Publishing Co., 1974.